



민주당이 지난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과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박준영 지사와 전남도 실·국장 등 간부들(왼쪽)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이낙연 전남도당위원장, 예결위 위원인 강기정·주승용·김영록·장병만 의원, 박상천·유선호·유윤근·이윤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 ‘지역현안 해결’ 당에서 힘 보태달라

■ 광주시·전남도 - 민주당 정책간담회

## 상품거래소·F1·엑스포 등 국비 반영을 “예산심의때 지방재정 확충 초점 맞출 것”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 지사가 지난 19일 민주당과 당협회의 회를 갖고 201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호남인 맥이 전멸하는 바람에 지역 현안사업들이 외면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 효도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지사도 F1(포틀러원)자동차경주대회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강운태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호남에 대한 비협조와 부당한 대우 탓에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지역적사업마저 다른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물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R&D특구 등 각종 국책사업에서 광주·전남이 외면받고 있으며, 중앙부처 내 호남인맥의 ‘전멸’로 인해 계속·신규사업에 대한 국비를 마련하는 데도 차질이 불가피해 민주당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 김영진 의원, 장병만 의원에게 “호남과 민주당을 부모와 자식 관계로 비유하는데, 이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기대와 서운함이 반영된 것이며 이제는 민주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조금 더 힘을 기울여줘야 한다”며 이른바 ‘민주당 효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는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 등 신규사업 13건(2103억원), 증액요청사업 7건(1505억원) 등 모두 20개 지역현안사업(3608억원)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광주시가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LED를 비롯한 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하고 지방재정을 보다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박준영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민주당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F1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특히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스포코엑스) 개발을 위한 간척지양도·양수문제 해결과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할 경우 등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F1과 여수엑스포·순천정원박람회 등 3대 국제행사 SOC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사업 미반영 예산 1897억원을 비롯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비 300억원,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 100억원,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비 300억원 등이다.

박 지사는 “주요 현안의 국비 요구액이 잘 반영되도록 도와달라”며 “F1의 경우 적은 예산이지만 올해 해당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도의 부담으로 남는 만큼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필수·윤현석기자 bungy@

### 광주시, 오늘 한나라당과 ‘국비 확보’ 정책 간담회

광주시는 22일 금수장 호텔에서 한나라당 광주·전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용화)와 ‘국비 확보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강 부시장은 2012년 광주시의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 “여수에 카지노·면세점 설치해야”

홍준표 대표 엑스포조직위 방문  
국내·중 관광객 유치위해 필요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9일 여수를 찾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박람회 성공 개최 만큼 사후 활용이 무척 중요하다”며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면세점과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카지노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홍 대표는 이날 여수엑스포조직위원

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잔치를 계기로 여수가 전남 최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큰 잔치가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있다. 대회가 끝나고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카지노가 있어야 한다”면서 “또 엑스포 기간 중에는 국내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엑스포 개최 이후 여수는 인구 100만명의 도시가 될



홍준표 대표가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후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 ■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50일 앞으로

# 86개 도시 대표단 참석 ‘성공 예감’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 정상회의에 해외도시 67곳을 포함, 모두 86개 도시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르는 단일 국제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1일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2011 UEA 광주정상회의(10.11~10.13)에 참석을 약속한 해외도시 67곳 중 31곳이 사전 온라인 등록을 마치는 등 국내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숙박, 의전, 회의 진행 등의 분야별로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광주시는 다음달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간 자문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유엔환경계획(UNEP)과 전시 구성 등을 마

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구 환경문제 해결의 주제로 떠오른 도시들이 ‘도시환경평가지표’와 ‘도시 CDM 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실천과제를 공유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의 관건이 될 도시 간 탄소 금융 제도 보급이나 개도국 도시에 대한 금융혜택 등을 통해 개도국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저탄소녹색도시상 제정 등을 담은 광주이니셔티브와 광주 선언도 채택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이번 정상

회의를 계기로 국제 저탄소 녹색도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주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협의체의 초대의장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의 기초연설은 아킵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후안 크로스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HABITAT) 사무총장, 레스터브라운 세계감시위원회 설립자 등 저명인사들이 맡기로 했다.

정상회의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신광조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은 “단순한 회의진행을 넘어 지구 환경 살리기를 위한 성과도출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MB, 이달말 3~4개 부처 개각

영광출신 강윤구씨 입각 거론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말 현직 국회의원인 특임,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 인선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복지부 장관 후임으로는 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보건복지 비서관을 지낸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진영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이 ‘3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윤구 원장은 영광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용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화부 장관 후보로는 광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김진선 전 강원지사, 박범용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설가 이문열,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선규 문화부 2차관 등이 함께 거론된다.

특임장관의 경우, 한동안 공식으로 비워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이 본인의

하지만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인택 통일 장관 교체설에 대해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온 직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33.3% 시장진

미치겠네

시장바뀌면...

내 대권꿈은 어찌라고 오버하니?!

# 신토불이 6년근 홍삼의 놀랍고 새로운 대발견

## 평화발효홍삼

### 속삭임이 선물세트 특별세일 | 단체주문 환영

▶천지홍 산수유 30포 35,000원

▶천지홍 홍삼진액 골드 30포 ..... 45,000원

▶천지홍 홍삼진액 골드 30포 ..... 60,000원

▶천지홍 홍삼 진골드 120g 5병 ..... 240,000원

일반 홍삼과 발효 홍삼은 100% 다르다.  
일반 홍삼은 콩이고 발효 홍삼은 된장이다.

평화 발효홍삼이란? 평화발효홍삼은 인류의 명약이라고 알려진 고려홍삼을 재래식 가마에서 특수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파평(행튀기) 처리하여 완성한 명품으로 일반 홍삼제품보다 유효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증량되었고 중성 홍삼제품은 체내 흡수율이 30%인 반면 저희가 기술개발한 평화발효홍삼은 체내에 100% 흡수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감기가 자주 오고 오래가는 분
- 설사와 변비가 잦은 분(장내 미생물 부족)
-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한 분
- 면역력이 약하신 분
-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 피부가 거칠고 부스럼이 잘 나는 분

■평화발효홍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당뇨원화 | 신경계 장애 | 피부탄력 노화방지 | 각종 피부질환 개선 | 세포부활 작용  
비만제거 개선 | 간기능 개선 | 혈압강하 작용 | 소화작용 | 항 콜레스테롤 작용 | 항 게양작용  
항암 작용 | 해독작용 및 증진속해

무료상담 전화 062-262-5375 · 010-6770-4488 · 010-6773-1283 무료 출장 상담가능